

News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부동산 과열 부담에 '동결 유력'

머니S

한국은행, 1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과열된 증시와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하가 유력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0년 8월 채권시장 지표'에 따르면 설문응답자 99.0%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

골드만삭스, 코로나에도 2분기 '선방'...매출 역대 두번째

연합뉴스

골드만삭스는 2분기에 24억2천만달러(약 2조9천64억원)의 순익을 기록...주당 순익은 6.26달러로 금융정보업체 리피티티브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78달러)를 상회
채권 트레이딩 매출 42억4천만달러로 9년 만에, 주식 트레이딩 매출 29억4천만달러로 11년 만에 각각 최고...코로나19 등으로 예상되는 대출 손실분으로 16억달러를 적립

주택담보대출 기준 코픽스 0.89%...사상 처음 '0%대'

연합뉴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9%로 5월(1.06%)보다 0.17%포인트(p) 하락...2010년 2월 첫 공시 이래 코픽스가 1%를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
시중 은행들은 당장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6월 코픽스 금리 수준을 반영

공간 비는 대형은행...상반기 예·적금 36조 증발

데일리안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및 적금 상품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5대 은행 예·적금 중도 해지액 36조2979억...전년比 5.0% ↑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0%대에 접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까지 맞물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예금 이자를 포기하고 현금을 찾는 경우 늘어

생보사 신계약 5년 만에 성장세... '꼼수 마케팅' 그림자

데일리안

생명보험협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기록한 금액 기준 신계약 규모는 총 111조3,058억원으로 전년 동기(110조3,119억원) 대비 0.9%(9,939억원) 증가
코로나 불경기에도 이례적 증가...보험 해지 확대 속 아이러니...기존 계약 깨고 새 상품 가입 유도...리모델링 변칙 영업 우려

금리인하 후폭풍' 생보사, 예정이율 줄인하 조짐... 한화생명 '앞장'

더팩트

한화생명이 3개월 만에 보험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정이율을 낮추면서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의 예정이율 인하 계획에 관심...2.25%에서 2.0%로 또 한 번 인하
보험업계 관계자, "한화생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생보사 몇 곳이 예정이율을 추가로 인하할 전망...현 2.25%인 예정이율이 2%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상품 광고 때 네이버 등 플랫폼 책임 강화한다

연합뉴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상품을 광고하거나 연계·제휴해서 판매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
핀테크와 금융사의 연계·제휴 영업과 관련, 명확한 행위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가 저야 할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

아시아나 협상 한달뒤 종료...소송전 명분쌓기 들어간 채권단

이데일리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현산 측에 한 달 내 협상의 진척이 없으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로...지금같은 교착이 이어지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후통보
관계자, "거래가 성사되려면 금호와 채권단이 아시아나의 가격을 깎아서 넘기거나 가격은 유지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둘 중 하나의 선택만 가능할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